

해남산 농수산물 수출 55% 급증... '폭발적 성장세'

작년 수출 2천350만달러 달성
해남 김·쌀 김밥 세계시장 입증
郡, 투자유치 'K-푸드 열풍' 선도



해남군의 농수산물 K-푸드 효황에 맞춰 지난해 2천350만달러를 달성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싱가포르국제식품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남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의 끈질긴 해외 시장 공략과 발로 뛰는 투자유치 행정이 글로벌 수출 무대에서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남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입증되며 전체 수출액이 55%나 급증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도약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물 총수출액은 2천350만8천달러를 기록해 전년(1천518만달러) 대비 약 55%(832만8천달러)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눈부신 성과를 이룬 핵심 주역은 단연 '김은 반도제'로 불리는 해남 김이다.

해남 김은 2024년 123(237만7천달러) 수출에

머물렀으나, 2025년에는 451(998만3천달러)으로 물량은 3.7배, 금액은 4.2배 급증하며 수출 효과 증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252(612만달러)을 기록

해 2024년 전체 물량을 훌쩍 넘어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해남쌀의 글로벌 활약도 돋보인다. 최근 미국 주요 식품기업인 뉴프론티어푸드사의 유

기농 브랜드 '오션스헤일로'가 해남쌀을 활용해 출시한 볶음김밥이 미국 최대 식품박람회인 '엑스포웨스트'에서 '베스트 유기농 제품'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4년 냉동식품 부문 '넥스티(NEXTY) 어워드'를 수상한 데 이어 2연속 쾌거로, 냉동김밥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해남쌀을 공급하는 해남농공환경도전환경의 지난해 수출액은 10억원을 돌파했으며, 해남쌀 전체 수출 물량도 783(132만7천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수출 상승세의 이면에는 K-푸드 효황에 맞춰 미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여는 데도 힘입어 두드러진 해남군의 전략적인 '세일즈 행정'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2025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국 현지로 직접 방문해 현장 실사와 지역별 수출 협상을 벌였다.

꽃마USA, 미슬리, 뉴프론티어푸드사, 홀푸드마켓 등 미국의 주요 유통·식품기업과 긴밀히

협의를 펼치고 고구마, 가공식품의 실제 수출이 늘어났다.

또한 LA 한인축제 참가, 남도장터US 온라인 쇼룸 개설, 해남쌀 판매 홍보관 생방송 참관 등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전개했다.

미국 최대 한인 마트인 마마트 및 농식품 전문 판매사 울타리(WooltariU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미주 시장 진출의 탄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주요했다.

군은 앞으로도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관 기업 육성, 해외 판로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다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년간 공들여 온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실질적인 대규모 수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해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식품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군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건강 지킴이 '톡톡'

4년간 1만여명 이용...사각지대 해소
경로당 68곳 방문 맞춤형 치료·상담

의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전담 방문팀은 매년 관내 68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간섭과 치료, 공기압 치료, 전기 찜질 등 통증 완화를 위한 맞춤형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층 의료 상담과 올바른 자세 교육, 일상생활 속 자가 운동법 지도까지 병행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고령층 주민들의 통증 감소와 신체 기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다.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한 어르신은 "움직이기 불편해 막막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정성껏 치료해 주니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해당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필수 의료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해 의료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양식장 폐사 막는 'Vib-키라' 출시

코미팜 협력...비브리오팀 억제 효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 'S등급'

이전, 최근 사료첨가제형 생물제제인 'Vib-키라'를 공식 출시했다.

이 제품은 특정 병원균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박테리오파지의 특성을 활용해 비브리오팀 증식을 최대 79%까지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하고 수질 개선 등 친환경 양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해당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며 기술적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보안 행정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

준 평가'에서 전국 1천442개 기관 중 상위 6.6%에 해당하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괄목할 성과를 냈다.

점자 파일과 수어 영상 안내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자생 생물자원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산업적 가치 창출은 물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농어촌공 나주시사

영농철 '물관리 현장설명회'

기상정보 교육·시설물 점검 실습 등



리시설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단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방기상청 초청 기상정보 활용 교육을 비롯해 농지은행 사업 안내, 현장 안전관리 교육이 병행됐으며, 대호저수지 현장으로 이동해

수리시설물 점검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류화열 나주시사장은 "농업용수 관리는 한해 농사의 출발점이자 안전 영농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변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통형 물관리 체계를 굳건히 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영광군,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 추진

영광군은 7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동시 진행하며, 관내 인구가 70만 명인 영광군도 27개 읍·면 11

종이상에 해당하는 1천23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위기 정보가 다수 중복되는 가구는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전남도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저·중·고위험군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발굴된 고위험군에게는 복지·건강·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고, AI 안부 살핌(케어콜) 서비스와 생필품 꾸러미 지원 등 총합한 사후 관리를 병행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독사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탄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군이 최근 성전면 백운동원림에서 역사·문화 체험 행사인 '2026년 생생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체험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 백운동원림, '생생 국가유산 프로그램' 호응

원림 속 역사·문화 가치 체험

강진군의 대표적인 전통 원림인 백운동원림이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호흡하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성전면 백운동원림에서 국가유산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2026년 생생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다수의 군민과 방문객이 참여해 원림의 고즈넉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통문화의 맛과 품격을 오롯이 즐겼다.

참가자들은 자연과 인문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백운동원림에 담긴 오랜 역사성과 상징성을

현장에서 직접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눈으로만 보는 단순 관람 방식을 탈피해, 문화유산을 몸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행사로 꾸며져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강진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백운동원림은 강진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며 "앞으로도 뜻깊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향교에서 전통문화 체험 즐기세요"

郡, 국가유산청 주관 공모 선정
가야금·판소리 강좌 무료 운영

영암군은 지역의 유서 깊은 향교를 거점으로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고즈넉한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영암향교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비 등 총 3천2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향교를 역사·문화 교육의 장이자 군민을 위한 열린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품격 국악의 향연이 펼쳐

지는 '향교 마당 음악회'를 비롯해 산조의 분향인 영암의 특성을 살린 가야금·판소리 교육,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전통 인문학 강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체계적인 실습을 돕는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영암향교에서 '전통문화 계승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김철 문화예술과장은 "전통 공간인 향교에서 우리 소리를 직접 배우고 즐기며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